

탈춤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 봉산탈춤 “양반과장” 속 말뚝이를 중심으로

A study on a Trickster in Talchum - Focusing on Maltugi in Yangbangwajang of Bongsantalchum

박희정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Hee-Jeong Park(mapli96@gmail.com)

요약

트릭스터는 고대부터 ‘속임수를 쓰는 자’라고 정의되어 왔다. 다시 말해 속임수를 통해 다른 인물과는 다른 자신만의 특징을 드러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이다. 본고는 기존 트릭스터 연구에서 논한 트릭스터의 기본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탈춤에서 트릭스터 유형에 해당하는 말뚝이에 대해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을 둔 연구이다.

트릭스터는 ‘속이는 자’이기는 하지만 성격이 애매하고 정상적이지 않으며, 경계성 또는 이중성, 다가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속이는 자’로만 정의할 수 없다. 트릭스터의 특징을 말함에 있어 “경계성”은 중요한데 공간, 시간, 사회, 언어 등 모든 면의 경계에 존재하면서 속이고, 장난하고, 욕심을 채우면서 사회질서를 공격하는 특성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이다.

탈춤에 등장하는 인물인 말뚝이는 신분은 천하지만 양반에게 거침없는 공격을 하는 인물이다. 이는 당시 삼정문란과 잦은 외침으로 양반의 무능력과 부도덕함을 느낀 민중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리자의 모습인 것이다. 말뚝이는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비하하며,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는 트릭스터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중심어 : | 트릭스터 | 경계성 | 말뚝이 |

Abstract

A term that has been used since ancient times, ‘trickster’ means ‘a person who performs general tricks’. In other words, a trickster is a person who exhibits his or her intrinsic characteristics by using tricks, or who has a special ability to make any situation work well only for him or herself. This thesis looks for basic concepts and features of tricksters in research undertaken into tricksters to date. It also aims to uncover the trickster side of Maltugi in Talchum (a traditional mask dance).

A trickster is a person who tricks, but the characteristic itself is unclear and abnormal. A trickster also has borderline, duplicitous or multi-value characteristics, so it is impossible to merely define him or her as ‘a person who tricks’. When dealing with a trickster’s characteristics, the ‘Liminality’ element is very important, because he or she is a person who exists in all the borderlines of space, time, society, and language, and assaults the social order via deceit, play, and the fulfillment of greed.

Maltugi in Talchum is a man of humble birth, but he is a character who attacks the Yangban (aristocrats) without hesitation. He is a kind of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who speaks for the commoners’ feelings. At a time of the Three Policies’ Disorder and frequent external aggressions, the commoners felt a sense of helplessness against the Yangban, who they viewed as immoral. Maltugi laughs at and depreciates the Yangban through the use of puns, and shows a faithful attitude to the present without being afraid of the result caused by his activity. This implies that he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trickster.

■ Keywords : | Trickster | Liminality | Maltugi |

I. 서론

인간은 개인이기는 하지만 사회와 떨어져서 혼자만 살 수 없으며, 자신의 이익을 좇으면서도 다수의 이익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좇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트릭스터는 이 모순을 표현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트릭스터는 고대부터 ‘속임수를 사용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왔다. 트릭스터는 속임수를 통해 다른 인물과는 다른 자신만의 특징을 드러내며,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속이는’ 행동을 하지만 미워하거나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트릭스터의 속이는 행동이 보는 이에게 통쾌함을 전해준다. 그렇지만 속임수는 트릭스터가 가진 성격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트릭스터의 성격을 정의한다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서양에서의 트릭스터 연구는 Daniel Brinton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Daniel Brinton은 ‘속임수를 사용하는 자’라는 뜻으로 정의되어 온 ‘트릭스터’라는 말을 하나의 인물 유형으로 사용했다[1]. 트릭스터 연구는 ‘문화적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트릭스터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논의로 출발해 트릭스터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내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바보 같은 익살꾼 이면서도 신성한 인물로 그려지는 트릭스터는 발달이 덜 된 원시적인 사회에서 만들어 낸 인물이며, 발달된 사회에서는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20세기 중반에는 트릭스터의 심리를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도 문화적 진화론과 비슷하게 트릭스터가 본능적이며 모순적인 인간의 심리를 반영한다고 했다[2]. 최근에는 트릭스터에 대한 기존 연구를 비판하면서도 기존 연구가 가진 가치를 받아들여 트릭스터를 재해석하며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를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트릭스터 연구는 R. Canda와 김기열, 조희웅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의 트릭스터들은 신화나 민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전형적인 모습으로는 신이나 왕, 체체에 불만이 많은 인물이거나 피가 많은 하

인, 동물로는 호랑이나 토끼의 경우가 많았다.

본고에서는 기존 트릭스터 연구에서 논한 트릭스터의 기본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주로 연구되었던 설화 외의 장르에서 트릭스터 유형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래서 우리 민중들의 생활에 밀접했던 탈춤 속 말뚝이를 트릭스터로 보고, 트릭스터 유형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을 둔 원론적 차원의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기존 연구에서 논한 트릭스터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말뚝이가 가지고 있는 인물의 특징을 통해 트릭스터로서의 말뚝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트릭스터의 기본 개념과 특징

트릭스터 연구는 19세기 트릭스터가 보이는 이중성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으며, 가장 먼저 출간된 트릭스터에 대한 연구서는 Paul Radin의 『The Trickster』이다. 그는 다른 인물을 속이면서도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도 속고 마는 인물로 트릭스터를 정의하면서 “각 세대가 트릭스터를 새롭게 해석하는 데에 전념한다. 어떤 세대도 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떤 세대든 그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3]. 이는 시대에 따라 트릭스터는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William J. Hynes와 William G. Doty는 트릭스터적 인물들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기 다른 문화적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호하고 변칙적인 성격이며 이것에 의해 다른 특징들도 생긴다고 하였다[4].

또한 Orrin Kiapp는 “그가 교만을 꺾는 기능은 사회 통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회가 인정하고 있다. 그는 지위를 조절하는 자이며 권력의 횡포를 견제하고 너무 교만해지거나 주제넘는 자를 꺾는다.”라며 트릭스터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든다고 하였다[5].

트릭스터를 어떤 범위나 경계와 관련하여 정의하려 했던 학자들이 많았다. “과피와 창조 사이의 섬세한 균

형을 유지[6]¹한다든가, “범주들을 뒤섞는 형상[7]², “주위의 계층[8]³”이라는 말들은 트릭스터를 경계와 관련된 인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경계의 의미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 트릭스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내리기가 어렵다.

그 외에도 이중성 혹은 경계성은 트릭스터의 힘과 관계가 깊다고 한 Laura Makarius나 Barbara Babcock-Abrahams, Gristiano Grottanelli의 연구도 있다.

기존 연구에서 알 수 있는 트릭스터의 특성으로는 경계성 또는 이중성, 다가치성, 모호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트릭스터의 특징은 학자들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상 살펴본 서양 학자들이 정의한 개념에서의 문제점은 첫째, 트릭스터에 대해 규정지를 때 각기 다른 의견들을 섞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트릭스터라는 인물 유형이 나타나는 서사의 보편적인 구조는 밝히지 못하고 인물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초기 트릭스터 연구도 트릭스터의 이중성의 의미에 대한 연구에 주였으나, 이후 트릭스터의 트릭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였다.

초기 연구는 석탈해나 주몽 같은 신화의 인물로 시작해 토끼, 호랑이 같은 동물 트릭스터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 후 연구된 트릭스터 인물로는 방학중, 정수동, 김선달이 주였고, 기녀나 도깨비 혹은 소금장수도 연구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트릭스터에 대한 인물 유형 연구보다는 트릭스터가 등장하는 신화나 민담에 대한 트릭스터담 연구가 더 많이 되어 있다.

트릭스터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김윤규로 트릭스터가 신분적 열세, 신체상의 왜소 등의 징표를 지닌 자로 이중 인격의 인물[9] 이라고 하였다. 다른 학자들

은 트릭스터를 ‘양가적 성격을 공유하는 중간적 존재의 인물[10], 표면적으로 열등하지만 트릭이라는 지적 유희를 구사하는 자[11]’ 등으로 정의 내렸다.

1981년 미국 학자인 Edwards R. Canda는 William J. Hynes가 공식화한 트릭스터 성격을 기초로 한국의 호랑이에 대해 연구했다.⁴ 호랑이는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습들은俗에서 聖까지의 진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한다. 세속적인 호랑이는 악한 존재이며, 신성한 호랑이는 선한 존재이지만 그 중간적 위치에 있는 호랑이는 도덕적인 가치와 관계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12].

반면 조희웅은堀一郎의『宗敎學辭典』에 제시된 트릭스터의 성격을 기초로 토끼, 매추라기, 김선달, 정수동, 방학중 그리고 백문선 등의 주인공을 트릭스터로 보았다. 그가 생각하는 트릭스터는 피를 잘 부리는 ‘피쟁이’ 인물이다.

그 외에도 이한길은 Paul Radin의 연구를 기반으로 “食”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피도 나오지만 자신의 욕구 때문에 스스로 속는 어리석음도 지니고 있다”고 하였고[13], 류정월은 “트릭스터 형상은 이중의 번부, 경계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을 모두 포함할 수도 있고 긍정 혹은 부정의 가치를 초월하는 것일 수도 있다[14]” 하면서 트릭스터를 일반적인 가치에 따라 정의내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상 살펴본 우리나라 트릭스터 연구는 대부분 트릭스터의 ‘속임수’에 중점을 둔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트릭스터는 ‘속이는 자’이지만 그 성격이 애매하고 정상적이지 않으며 다가치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트릭스터의 다가치적인 면은 트릭스터를 ‘속이는 자’로만 정의내릴 수 없게 한다. ‘속이는 자’는 모두 트릭스터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는 누구를 어떻게 속이든지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물의 전체 성격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1. 브라이언 스트리트는 트릭스터의 역할이 창조성과 파괴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

2. 빅터 터너는 트릭스터를 새로운 결합과 변태들을 만들기 위해 모든 범주들을 깨뜨리고 뒤섞는 형상이라고 간주한다. 중간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제도에 새로운 가능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liminal phrase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

3. 매리 더글라스는 트릭스터 형상을 peripheral class의 대표적 인물로 보면서, 그룹의 억압을 다른 계층의 사람들보다 덜 느끼는 사람으로 본다. 또 dirty가 가지는 특성과 관련지어 질서화된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질서의 위반이라는 모순되는 문제를 구현하는 인물로 간주

4. Hynes가 제시한 전형적인 트릭스터 성격은 첫째, 특별한 혹은 마법적인 술책들의 연행 둘째, 변장이나 자기변신에 의한 모습 바꾸기 셋째, 행위의 뜻밖의 반전에 의해 초래된 상황과 가치 뒤집기 넷째, 행위들·메시지들·의미들 혹은 신성한 것으로부터 유래한 힘 등을 전하거나 훔쳐내기 다섯째, 성적인 그리고 미식법의 업적들과 다른 유혹을 도발케 하는 행위 등이다.

(Edwards R. Canda, "The Korean Tiger: Trickster and Servant of the Sacred," Korean Journal 12/11, p.31, 1981.)

다시 말해, 트릭스터는 ‘속이는 자’이지만 가지고 있는 성격의 본질을 간단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트릭스터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도 학자들 간에 견해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트릭스터의 성격에 대해 Stanly Diamond는 “트릭스터는 인간의 모호성을 의인화한다. 트릭스터는 희극 정신의 원형이며, 주체성의 문체에 대한 풍자, 어릿광대의 조상, 영원한 바보 그리고 인간 존재의 부조리의 화신이다[15].”라고 하였고 Robert Pelton도 트릭스터는 경계라는 공간에 존재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불일치와 모순을 구체화한다고 했다[16].

트릭스터는 공간, 시간, 사회, 언어 등 모든 면에서 경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계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 트릭스터는 경계에 존재하면서 속이고 장난하고 욕심을 채우면서 사회질서를 공격한다.

트릭스터를 설명하는 데 있어 “경계성”이라는 개념은 중요하다. 경계성이란 Victor Turner가 통과의례 이론[17]에 바탕을 두고 논의한 “Liminality”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문지방을 의미하는 라틴어 ‘limen’에서 나온 말로 다른 공간에서 문지방을 통과하여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통과의례 이전의 모습은 버리고 통과의를 통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사회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를 뜻하는 것이다.

Victor Turner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경계성의 발현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길’이라는 공간과 관계가 깊다. 트릭스터가 떠돌아다니는 공간, 사건이 벌어지고 해결되는 공간은 바로 ‘길’이다. 출발지도 아니고 도착지도 아닌 중간 공간인 길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둘째, 언제나 내일에 대한 걱정도 없이 오로지 오늘만을 사는 트릭스터의 모습이다.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미래의 모습이 어떨지는 상관없이 현재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채울 욕심만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의 두려움이나 다가올 결과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하는 행동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인 제도를 벗어난 경계에 있기에 사회관습을 지키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사회 질서나 도덕과는 상관없이 행동하는 ‘양반

속이는 하인’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트릭스터의 속임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트릭스터의 언어에 대한 것이다. 언어 체계의 경계에 있기에 언어가 가진 여러 의미 기능을 알 수 있고 그 의미 기능을 자기에게 유리한 의미로 해석하게 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는 언어와 의미의 경계에서 언어의 모호성과 중의성을 잘 이용하여 다른 이를 속일 수 있는 트릭스터의 가장 큰 능력이다.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트릭스터는 시간, 공간, 사회, 언어의 경계에 존재하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 경계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트릭스터에 대한 기존연구를 통해 트릭스터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트릭스터로서의 말뚝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III. 트릭스터로서의 말뚝이

트릭스터의 가장 큰 특징은 ‘경계성’으로 어느 한 곳에 속하지 않고 경계에 존재하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고자 상대방을 속인다. 이는 기존 경계를 어기면서 새로운 경계로 넘어가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때 자주 사용하는 것이 언어를 통한 속임수이다. 이는 트릭스터가 언어와 의미의 경계에 있는 여러 의미 영역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의미의 영역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언어체계의 경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속임수는 언어를 활용한 속임수로 거짓말과 언어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언어유희가 있다.

트릭스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발음은 같지만 의미는 다르게 해석되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한다.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사투리나 오해할 수 있는 애매한 메시지 등의 언어유희가 언어의 모호성, 중의성을 드러내 의사체계를 오해하게 만드는 순발력과 재치를 발휘하여 상대방을 속이면서 조롱한다.

그 외에도 트릭스터의 속임수로는 호랑이가 오누이의 어머니로 꾸미고 오누이를 잡아먹으려 하는 모습에

서처럼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도 한다. 혹은 탈해가 수 돌과 숯을 미리 호공의 집 옆에 묻어 속임수를 위한 도구들을 준비하여 성공시킨 것처럼 계획적으로 도구 등을 설치하거나 준비하는 등 거짓으로 만들어진 상황을 통해 상대방을 속이기도 한다.

한국 트릭스터의 인물유형 대부분은 몰락한 양반이거나 중인 이하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 천대 받거나 가지지 못한 자들이다. 이런 신분의 트릭스터들이 돈과 여자를 쉽게 얻을 수 있거나 인색하거나 근엄한 척하는 양반의 모습을 자신의 뛰어난 재치로 조롱하고 별함으로써 민중의 대리만족을 충족시켜 준다. 이런 트릭스터 유형이 많은 이유는 유교적 사회 배경에서 “규범과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업이었기 때문”이며 “집단보다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사는 반영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18].

우리나라의 트릭스터는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데 양반을 속이는 하인 유형이 가장 많다. 설화 속 하인은 양반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양반의 어리석음과 무능력함을 밝히거나 지적한다. 하인은 양반에게 속한 신분이라는 하지만 재치를 발휘해 개인의 불만을 겉으로 표현하여 양반을 회화시킨다. 그렇지만 탈춤에 등장하는 하인인 말뚝이는 적극적으로 양반을 비판하는 인물이다. 말뚝이는 민중을 대변하는 대리자로 힘겨운 삶에 치이고 양반의 무능력함으로 상처 입은 민중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영웅이라고 볼 수 있다.

김열규는 탈춤 속 말뚝이와 취발이에서 트릭스터의 특성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말뚝이와 취발이는 평민과 상민의 생각을 표현하는 대변자라고 하였는데, 특히 적극적인 행동으로 양반들을 교묘하게 놀리는 말뚝이의 행동을 통해 말뚝이가 더 트릭스터답다고 하였다 [19].

말뚝이는 대부분의 탈춤에 등장하는 인물로 당시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말뚝이의 신분은 천하지만 거침없이 행동하는 공격적인 인물이다. 기본적 신분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말뚝이는 외모와 지식 등이 양반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로 그려지고, 양반을 조롱하는 행동과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한다. 이는 당시 田政, 軍政, 還穀

의 삼정문란과 잦은 외침으로 양반의 무능력과 부도덕함에 실망한 민중의 마음과 민중들의 경제적 능력 향상으로 인해 신분상승에 대한 높은 욕구를 드러내는 등 당시 신분제도가 붕괴되어 가고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분관계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양반이 시키는 일을 한다. 새처를 정하거나 취발이를 잡아오라는 명령으로 듣고 취발이를 잡아 오는 행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양반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런 말뚝이의 행동과 언어를 통해 자신의 신분에 맞는 질서를 지키면서 사회제도에 도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봉산탈춤의 양반과장에 등장하는 말뚝이가 가진 트릭스터로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봉산탈춤은 해서지역 탈춤 중 하나이다. 봉산탈춤은 제1과장 사상좌춤 - 제2과장 팔목중춤(제1경 목중춤 - 제2경 범고놀이) - 제3과장 사당춤 - 제4과장 노장춤(제1경 노장춤 - 제2경 신장수춤 - 제3경 취발이춤) - 제5과장 사자춤 - 제6과장 양반·말뚝이춤 - 제7과장 영감·할미춤으로 모두 7과장 5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백사진경의식무-과계승에 대한 모욕과 풍자-양반에 대한 모욕-처첩의 삼각관계와 서민의 생활’로 요약할 수 있다.

양반과장은 대부분의 탈춤에 포함되어 있고 신분제도의 붕괴, 민중들의 심리 등 당시 사회의 모습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다. 봉산탈춤의 양반과장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말뚝이가 양반을 인도하여 등장한다.
2. 말뚝이가 양반을 희롱한다.
3. 양반이 상전을 모시지 않은 말뚝이를 나무란다.
4. 말뚝이가 노새 원님(노새)을 끌고 양반을 찾아다니는 이야기를 한다.
5. 말뚝이가 양반의 마나님과 통정했음을 암시한다.
6. 양반이 말뚝이에게 새처를 잡을 것을 명한다.
7. 말뚝이가 돼지우리를 새처로 잡아준다
8. 새처에서 말뚝이와 양반의 복잡이 놀이를 한다.
9. 양반과 말뚝이의 운자놀이를 한다.

10. 양반들의 파자놀이를 한다.
11. 양반이 말뚝이에게 나랏돈을 횡령한 취발이를 잡아들이게 한다.
12. 말뚝이가 양반의 전령을 받아 취발이를 잡아온다.
13. 양반이 취발이를 죽일 것을 명한다.
14. 양반은 말뚝이의 증재로 취발이로부터 돈을 받고 죄를 무마시켜준다.

다른 지방의 탈춤들은 양반이 먼저 등장해서 말뚝이를 찾는데 봉산탈춤은 말뚝이가 먼저 등장하는 차이가 있다. 말뚝이가 양반보다 먼저 등장하여 양반을 소개하면서 양반을 회롱하고 양반을 맞이하는 음률을 비하해 양반을 조롱한다.

말뚝이 : 양반 나오신다야!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육당을 다 지내고 - 중략 -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 중략 -

말뚝이 : 악공들 들으시오, 오음육률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훌뜨기 뽕아다 불고 바가지장단 줌쳐 주오⁵

양반을 부를 때 ‘양반님’이 아니고 ‘양반 나오신다’라고 말하거나 양반을 지칭하는 단어를 ‘개잘량’, ‘개다리 소반’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통해 신분적인 예우를 무시하며 조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뚝이가 양반을 대하는 행동과 언어는 당시 사회의 신분제도에 거스르지만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양반을 놀리다가도 양반이 화를 내면 변명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갈등이 고조된다.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는 최고조는 양반이 머무를 새처를 돼지우리로 정하는 부분이다.

말뚝이 :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예,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꽃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

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냈습니다.

- 중략 -

말뚝이 :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평양 동푸루 선창에 돼지 똥물애다 축축 축여 냈습니다.

양반의 새처를 돼지우리로 정해 양반을 먹을 것만 챙기는 욕심 많은 존재로 그리고 있다. 이처럼 말뚝이는 양반을 우습게 보고 조롱의 정도를 높여가면서 양반을 모욕하지만 양반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차렸어도 별 줄 방법을 찾지 못한다. 양반으로서 위세를 내세우려고 말뚝이에게 큰소리를 치며 헐박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이미 능력과 권위를 잃어버린 상황을 더 드러낼 뿐이다. 민중들은 말뚝이에게 당하며 자신들의 무능력과 어리석음이 드러내는 양반들의 모습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는다. 이처럼 말뚝이가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는 모습에서 언어의 경계성을 드러내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길이라는 점에서 공간의 경계성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행동 이후에 벌여질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이나 말을 거침없이 표현함으로써 현재에 충실한 트릭스터의 시간의 경계성 모습도 보여준다. 거기에 사회적 제도에 속박을 받지 않고 자신보다 높은 신분인 양반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통해 사회의 경계성까지 볼 수 있다.

이처럼 양반과장에 등장하는 말뚝이가 하는 양반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과 행동에서 트릭스터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본고는 기존 트릭스터 연구들에서 논한 트릭스터의 기본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한국에서 주로 연구되었던 설화 외의 장르인 탈춤 양반과장에 등장하는 말뚝이를 트릭스터 유형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기존 트릭스터에 대한 연구는 트릭스터의 이중성을 다룬 연구, 기능과 역할을 다룬 연구 그리고 경계성을

5 구체적 자료로는 최웅, 유태수, 이대범, 한국의 전통극과 현대극, 북스힐, 2003에 수록된 이두현이 채록한 연희본을 고찰대상으로 삼았다.

다른 연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었지만 트릭스터가 가진 이중성 또는 다가치성, 모호성, 경계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트릭스터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트릭스터는 공간, 시간, 사회, 언어 등 모든 면에서 경계에 존재하는 경계성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사회제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는 개인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누구보다도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모순적인 인물이다. 이런 현실 인식을 기본으로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트릭스터가 주는 웃음은 현실적이다. 또한 그 웃음을 통해 모순된 사회의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사회 풍자적인 성격을 드러내면서 사회 비판의 역할도 하는 것이다.

트릭스터는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는 보편성을 지니면서도 다른 문화마다 가지고 있는 그 문화만의 특수성도 드러낸다.

한국 트릭스터의 인물유형은 몰락한 양반이거나 중인 이하의 신분으로 천대 받거나 가지지 못한 자들인데, 인색하거나 근엄한 양반을 뛰어난 재치로 조롱하고 처벌함으로써 민중의 대리만족을 충족시켜 준다. 특히 설화에 양반을 속이는 하인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유교적 사회 배경의 영향으로 재치가 많은 하인이 무능력하고 욕심 많은 양반을 속이는 행동은 민중들에게 통쾌함을 주기 때문이다.

말뚝이는 대부분의 탈춤에 등장하는 인물로 신분은 천하지만 거침없는 양반을 공격적인 인물이다. 기본적인 신분제도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말뚝이는 양반을 능수능란하게 조롱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양반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로 그려진다. 이는 당시 田政, 軍政, 還穀의 삼정문란과 잦은 외침으로 양반의 무능력과 부도덕함으로 인해 실망한 민중들의 마음과 민중들이 경제제 능력을 가지게 되자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신분제도를 거스르고자 하는 사회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말뚝이가 양반을 대하는 행동과 언어는 당시 사회의 신분제도를 거스르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 이후에 벌어질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자신

이 하고자 하는 행동이나 말을 거침없이 표현함으로써 현재에 충실한 트릭스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사회적 제도에 속박을 받지 않고 자신보다 높은 신분인 양반을 비하하고 조롱하며 사회의 경계에서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다.

이처럼 양반과장에 등장하는 말뚝이가 하는 경계성을 지닌 말과 행동에서 트릭스터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기존 트릭스터 연구에서 자주 논의되지 않았던 탈춤에 등장하는 말뚝이를 트릭스터 유형으로 보고 살펴 트릭스터로서의 말뚝이에 대한 원론적이고 문제제기적인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라는 점을 말해 둔다. 이번 논문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고 앞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나수호,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방학중, 정만서, 김선달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p.8, 2011.
- [2] 나수호, <토끼전>과 북미원주민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비교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pp.69-70, 2002.
- [3] Paul Radin, *The Trickster: A study in American Indian Mythology*, New York: Schocken, p.168, 1955.
- [4] William J. Hynes and William G. Doty eds, *Mythical Trickster Figures: Contours, Contexts and Criticisms*,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pp.34-35, 1993.
- [5] Orrin Kiapp, "The Folk Hero,"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62, No.243, p.30, 1949.
- [6] Brian Street, "The Trickster Theme: Winnebago and Azande," Andre Singer and Street, eds., *Zande Theme: Essays Presented to Sir Edward Evans Pritchard*, Totowa: Rowman and Littlefield, p.97, 1972.

- [7] Victor Turner, *The Forest of Symbols: Aspect of Ndembu Ritual*, Ithaca, Carnell Universe Press, p.208, 1967.
- [8] Barbara Babcock-Abraham, “A Tolerated Margin of Mess: The Trickster and His Tales Reconsiderd,” *Journal of the Folklore Institute*, Vol.11, No.3, p.152, 1975.
- [9] 김열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3.
- [10] 조희웅, “트릭스터담 연구,” *어문학논총*, 제 6집, p.85, 1987.
- [11] 이한길, *속임/속음의 서사구조-트릭스터 유형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p.8, 1989.
- [12] Edwards R. Canda, “The Korean Tiger: Trickster and Servant os the Sacred,” *Korean Journal*, Vol.12, No.11, pp.22-38, 1981.
- [13] 이한길, 위의 논문.
- [14] 류정월, “전(傳) 양식에 관한 문화기호학적 고찰 -트릭스터담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16권, P.211, 2004.
- [15] Stanly Diamond, *In Search of the Primitive*, Transaction Books, p.189, 1974.
- [16] Robert Pelton, *The Trickster in the West Africa: A Study of Mythic Irony and Sacred Deligh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223-284, 1980.
- [17] Victor Turner, *Passages, Margins, and Poverty: Religious Symbols of Communitas*, Dramas, Fields, and Metaphors, Carnell Universe Press, 1974.
- [18] 나수호, 위의 논문, p.229.
- [19] 김열규, “북한의 탈춤(III) 트릭스터탈춤의 主役들(I),” *북한*, 제104호, 1980.

저 자 소 개

박 희 정(Hee-Jeong Park)

증신회원



- 2003년 8월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교육학석사)
- 2012년 2월 : 중부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및 한국어교육원 강의

<관심분야> : 한국어 교육, 공연예술 등